

특별기획



김제시, 수질오염총량제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김제시는 지난 22일 시청 상황실에서 이승복 김제시장 권한대행 주재 하에 관련부서 공무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질오염총량관리제 3단계 시행계획 수립 및 2015년 이행평가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는 환경부가 고시한 시도경계 목표수질에 따라 오염물질에 대하여 지자체별로 수립된 허용총량을 유지하여 관리하는 제도로서, 배출오염량 한도 내에서는 다양한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015년도는 2단계(2011~2015년) 최종평가년도로 이행평가 결과 할당부하량을 초과할 경우 김제시 개발사업 허가·승인 등의 제한을 받게 되므로 평가결과에 모두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으며, 2015년 이행평가 결과 민경B, 원경A 유역 모두 할당부하량을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제시는 민경강(민경B, 민경C), 동진강수계(원경A, 동진B)로 구분 관리하고 있으며 금회 3단계(2016~2020년) 시행계획에서는 총량제 적용 물질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영양화현상을 제어하자는 취지의 T-P(총인)을 추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군 생활개선회, 종합평가회

부안군 생활개선회 2016년 종합평가회가 지난 23일 부안군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회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종합평가회는 일하는 틈틈이 새로운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업현장에서 선도적으로 실천하면서 겪었던 시행착오와 성공담을 나누고 앞으로 더 열정적인 학습활동을 하고자 회원끼리 서로 격려하고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 원광대학교 전북지역 광역심비협관장관지원센터 오경재 교수는 특강을 통해 성공적인 농업활동을 위해서는 농민의 건강이 최우선 조건임을 강조하며 쉽고 재밌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와 농작업 재해예방교육으로 참여자의 호평을 받았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부안군 농업기술센터는 2016년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돼 받은 상금 100만원을 부안군 나눔기금장학금으로 기탁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시 이통장연합회 결산총회 개최

김제시 이통장연합회는 지난 23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2016년도 이통장연합회의 운영 결산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올 한 해 운영 활동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통해 연합회의 발전 방향과 읍면동 간 상호 협력 관계를 증진시키는 방안을 수립했다.

총회에 앞서 이광범 연합회장은 매일 회원들이 모은 작은 성금을 김제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과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각각 100만원씩을 기탁했다.

이승복 김제시장 권한대행은 장학금과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해 주신 이·동장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의회 언론길들이기?

예산심의 비판기사 보도 신문 구독 예산 삭감 사실 알려져 파문 일어

김제시의회가 내년도 김제시 예산심의 과정에서 시의회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보도한 언론에 대해 신문 구독 예산 등을 삭감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김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일부 의원들은 사실 관계를 적시하지 않은 채 언론 보도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을 주문하고 신문 구독 예산 등 언론 홍보비를 삭감해 예산 심의를 언론 길들이기에 이용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제시의회 예결위 속기록에 따르면 예결위는 지난 6일 문화홍보추진실에 대한 내년도 예산심의를 진행하면서 김모 의원이 "김제시에 대해서 비판적인 신문은 구독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예산 심사 설명을

위해 참석한 한 간부 공무원을 상대로 "신문사라는 것은 공평하게 양쪽 이야기를 듣고 써야 된다. 한쪽 이야기만 듣고 편파적으로 보도하는 신문은 안보여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한쪽 이야기만 듣고 편파적으로 그쪽만 보도하는 신문사를 알려줄테니 구독하지 말라"고 재차 이 간부 공무원을 압박했다.

이날 또다른 예결위원은 "(언론은) 객관성 있게 중립적이어야 하는데 어느 한쪽 일방적으로 보도가 났을 때 문화홍보추진실장이 기자들에게 이야기 해야 한다"며 비판적인 보도를 한 언론사에 강력한 형의 등 언론 대책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언론의 편파 보도가 있을 경우) 홍보실장의 임무가 뭐냐"고 따지면서 "시의회나 집행부는 공동체

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언론의 피해자로 예산을 심의하기 때문"이라며 자신들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언론을 구독료 예산 삭감이라는 방법으로 재갈을 물렸음을 사실상 인정했다.

이에 대해 자영업자 안모(52)씨는 "김제시의회가 중요한 김제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시정 홍보비와 신문 구독료 등 언론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은 돈으로 언론을 길들이기 하는 구태"라며 "언론은 권력을 감시해야 하는 막중한 의무가 있는 사회적 공익으로서 비판보도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제시의회는 지난 15일 정기회를 폐회하면서 문화홍보추진실의 내년도 김제시정 홍보비와 신문 구독료 예산 절감을 삭감한 바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아이들을 미래 꿈나무로 키운다'

정읍시 드림스타트, '드림가족 한마당잔치' 열어

정읍시 드림스타트는 지난 23일 2016 드림가족 한마당잔치를 가졌다.

드림스타트 아동과 가족뿐 아니라 직원과 협약업체, 후원인 모두가 함께 한 이 행사는 올해 10회째로 마련됐다.

드림스타트 가족을 위해 애쓰는 직원과 후원자들의 올 1년간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한 해 동안 운영해온 프로그램의 다양한 활동 결과를 함께 나누고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날 참여자들은 그간의 활동을 담은 사진 전시를 즐기고 특색 있는 체험 활동을 함께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기념식을 시작으로 드림스타트 모범 어린이와 유공자 표창과 감사장 전달식에 이어 축하공연인 샌드 아트와 가족 레크리에이션 등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졌다.

특히 아동들이 그간 갖고 닦은 실력을 선보이는 장기자랑과 꾸밈하게 마련된 경품 행운권 추첨도 더해져 즐거움을 더했다.

드림스타트 관계자는 "드림스타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고 "아동들이 미래 꿈나무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간부 공무원, AI 방역활동 나서

김생기 시장·간부 공무원 50여명, 크리스마스 연휴기간 거점소독시설 근무

김생기 시장을 비롯한 정읍시 간부 공무원 50여명이 지난 24일과 25일 직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활동에 직접 나섰다.

특히 김 시장은 25일 0시부터 아침 8시까지 영원면에 설치된 방역초소에서 직접 방역활동에 나섰다.

김 시장은 "밤낮으로 초소근무에 애쓰는 직원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크리스마스 연휴 하루라도 마음 놓고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간부 공무원들이 방역에 나섰다"고 밝혔다.

간부공무원들은 오전 8시부터 자정

까지 이틀간 신대인초소를 비롯한 9개 거점소독시설에서 현장 근무에 참여했다.

특히 김 시장은 25일 0시부터 아침 8시까지 영원면에 설치된 방역초소에서 직접 방역활동에 나섰다.

김 시장은 "밤낮으로 초소근무에 애쓰는 직원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크리스마스 연휴 하루라도 마음 놓고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간부 공무원들이 방역에 나섰다"고 밝혔다.

간부공무원들은 오전 8시부터 자정

과 예찰을 실시하는 등 방역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AI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과 방문객들에게 차량소독과 이동통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과 가금류 사육농장 출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현재 거점소독시설 9개소와 이동통제초소 9개소 총 18개소의 방역초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일 공무원 70여명과 민간인 50여명 2시간 근무하는 등 AI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시, 새만금 2호 방조제 내 건축물 행정절차 마쳐

지적공부등록에서 건축물 사용승인까지 김제관할로 등록 완료

김제시는 지난 24일 새만금 개발청으로부터 새만금 2호 방조제 내 새만금 33센터 및 4개 윗터 건물 등 관련 건축물 사용승인이 김제관할로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6일 새만금 개발청에서 지적공부 등록 이후 6개월 만에 건축물 사용승인이 완료되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26일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새만금 1.2호 방조제 결정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마쳤다.

그동안 김제시는 건축물 사용 승인을 비롯하여 새만금 2호 방조제 행정절차 이행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다. 이승복 김제시장 권한대행이 부시장으로 취임 후 1년 동안 직접 행정절차 진행상황을 일일이 점검하고 관계부서 담당 회의를 통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과 새만금 개발청 등 관련기관에 적극적인 건의와 독려를 통해 준비를 철저히 해온 것이다.

지금까지 처리한 행정절차 주요내용은 제설, 쓰레기 수거, 해안선 정비부

계 변경(국립해양조사원, 10.5km), 지적공부등록(새만금 33센터 : 삼포리 2413번지, 새만금상설공연장 : 2422번지), 불법 광고물 정비, 도로명 주소 부여, 재산세 과세대상 등재, 경계표지판 설치, 방역, 상설 공연장 앞 경관조성 사업 등이 있다.

김제시는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행정절차에 대해서도 신속히 처리하고 내주매입지는 물론 신항만과 2호 방조제 앞 연안관리에 대한 행정절차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새만금 중심도시로의 기반을 탄탄히 다져나간다는 입장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 '청소년 통일 드림 토크 콘서트'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안군 협의회는 지난 23일 부안여자고등학교 강당에서 '청소년 통일 드림 토크 콘서트'를 가졌다.

이날 무관심한 청소년들에게 가슴 뛰는 통일이야기 전달을 통해 청소년들의 미래 통일에 대한 관심과 올바른 통일관을 정립하려고 마련됐다.

행사는 부안여자중학교와 부안여자고등학교 재학생 및 자문위원 등 600여 명이 참석한 '청소년이 말하고 싶은 통일이야기'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보여주기가 행사가 아닌 주제에 대한 공감의지를 확산시키는 공연으로 사회자와 패널들의 즉석 즉답, 통일 한 줄 생각 작성 등을 통해 이들을 토크로 끌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돼 청소년 스스로 주인공이 돼 통일을 상상하고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이 꽤 큰 호응을 얻었다. /부안=이옥수 기자

여 명이 참석한 '청소년이 말하고 싶은 통일이야기'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보여주기가 행사가 아닌 주제에 대한 공감의지를 확산시키는 공연으로 사회자와 패널들의 즉석 즉답, 통일 한 줄 생각 작성 등을 통해 이들을 토크로 끌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돼 청소년 스스로 주인공이 돼 통일을 상상하고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이 꽤 큰 호응을 얻었다. /부안=이옥수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들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찻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GIFT SET 1.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 | 750ml 1ea/12%



GIFT SET 4.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 | 375ml 5ea/13%



GIFT SET 6. | 500ml 정병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GIFT SET 7. | 375ml 2ea/13%

TEL : 083-584-9900
www.gangsanwine.com